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 포

2026. 8.7(금) 14:00

국내 원폭피해동포 첫 히로시마위령제 방문 지원

- 국내 거주 원폭피해동포와 가족 25명, 8월 4~7일 히로시마 위령제 참석
- 올해부터 일본 거주 피해동포 중심 사업을 국내 거주 피해동포까지 확대
- 현장 기록영상 제작...차세대 역사·평화 교육 콘텐츠로 활용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국격에 걸맞는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처음으로 국내 거주 원폭피해동포와 가족 25명을 대상으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원폭피해자 위령제 방문 사업을 8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3박 4일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그동안 일본 거주 원폭피해동포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위령제 지원을 국내 거주 피해동포까지 확대한 첫 사례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동포들을 폭넓게 보듬고 국내외 피해동포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수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재일동포 사회와 함께 매년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 이번 방문단은 8월 5일 히로시마 기념 공원 내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 이어 일본 거주 원폭피해동포들과 만나 연대의 뜻을 확인했고, 히로시마 소재 원폭 역사관 등을 찾아 전쟁과 핵무기의 참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희생자 위령제를 맞아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 김 청장은 “81년 전 원폭의 비극으로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피해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이어 “오늘날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과 갈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한 만큼 과거의 비극이 남긴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 상생과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책임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폭 피해의 역사와 교훈을 기록·보존해 차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한편, 국내외 원폭피해동포 간 교류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 1. 추모사 1부.
2. 관련사진 3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책임자	과 장 이규현 (032-585-3172)
		담당자	사무관 오은아 (032-585-3176)

